

챔스필드 130만 관중시대 연다

홈 57경기 101만3천984명...16경기 남아
역대 최소57경기만에 100만 관중 돌파
올 29차례 매진...구단 최다타이 '-1'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구단 최초 130만 관중을 바라본다.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KIA는 지난달 29일까지 홈 57경기에서 101만3천984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천789명이다.

안방 경기는 16경기가 남았다. 130만 관중까지는 28만6천16명이 필요하다. 남은 경기에서 평균 1만7천876명이 입장하면 된다.

현재 평균보다 경기당 87명 많다.

지금의관중 추이를 감안하면 130만 관중도 가시권이다.

100만 관중 돌파 속도도 빨랐다.

홈 57경기만에 100만 관중을 넘어서었다. 구단 역대 최소 경기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2024년의 59경기였다. 당시보다 2경기 앞당겼다.

구단역대 한 시즌 최다관중 기록도 2024년에 나왔다.

당시 73경기에서 125만9천249명이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를 찾았다.

올해는 100만 관중 돌파 시점을 앞당겼다. 역대 최다 기록 경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남은 일정도 눈여겨볼 만하다.

홈 16경기 중 7경기가 주말(금·토·일요일)에 열린다.

KIA는 올 시즌 금·토·일요일에 홈 27경기를 치렀다. 이 가운데 24경기가 매진됐다. 매진율은 88.9%다.

남은 안방 경기 가운데 KT전이 6경기로 가장 많다.

올 시즌 광주에서 열린 KT전은 3경기다. 모두 2만500석이 꽂혔다.

NC와의 홈경기도 2경기가 남았다. 광주에서 열린 NC전 5경기 역시 모두 매진됐다.

남은 홈 16경기 가운데 KT·NC전이 8경기다. 절반을 차지한다.

시즌 막판까지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일정이다.

매진 기록 경신도 눈앞이다.

KIA는 올 시즌 홈 57경기 가운데 29경기를 매진시켰다.

구단 한 시즌 최다매진 기록은 2024년의 30경기다.

올해는 타이 기록까지 1경기 남았다. 신기록까지는 2경기다.

당장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KT와 홈 3연전을 갖는다.

이에 앞서 주중에는 창원에서 NC와 원정 3연전을 소화한다.

KIA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순위 경쟁도 치열하다.

역대 최다관중 경신은 물론 130만 고지가 보이고 있다.

/주홍철 기자



한국 축구 '임시 감독'에 모레노

9-11월 A매치 6경기 지휘...내년 아시안컵까지 맡을 수도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48)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선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과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한다.

계약 기간은 11월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다.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 작업의 속도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새 회장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인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모레노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향후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몸담던 시절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경험이 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는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 사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5개월 만



모레노 임시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에 지휘봉을 넘겨줬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나눔의 기업문화 선도' 우미건설, 장애인체육선수 입단식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을 통한 나눔의 기업문화를 선도하는 우미건설이 올해 신입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달 28일 열린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입단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안항범 호남지사장, 김정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장애인체육 선수 8명 채용에 이어 올해 펜싱, 파크골프, 사격, 수영 등 4개 종목 선수 4명을 추가 채용했다. 이에 따라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는 모두 11개 종목 11명으로 늘었다.

우미건설은 장애인 선수 지원뿐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전 후원에도 적극



극 동참하고 있다.

오는 11-16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김영길 대표이사가 직접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소속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에 1천만원을 후원한 데 이어 올해도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선수단 선전을 기원했다.

/박희중 기자

타율 0.321, 18안타, 6홈런, 12타점, 16득점, 장타율 0.714

폭염보다 뜨거웠던 8월 김도영, MVP 후보 선정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8월 월간 MVP에 도전한다.

KBO는 1일 2026 신한 SOL KBO 리그 8월 월간 MVP 후보 8명을 발표했다.

야수 부문에서는 김도영을 비롯해 삼성 구자욱, 롯데 레이예스, 키움 서건창이 후보 에이름을 올렸다. 투수 부문에서는 SSG 아빌라, 삼성 페텍, 두산 박빈과 최민석이 선정됐다.

김도영은 8월 뜨거운 장타력을 뽐냈다.

1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21, 18안타, 6홈런, 12타점, 16득점을 기록했다. 장타율은 0.714에 달했다.

홈런은 월간 공동 1위다. 득점과 장타율에서는 나란히 단독 1위에 올랐다.

개인 기록도 새로 썼다.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39호 홈런을 터뜨렸다.

2024시즌 기록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38개를 넘어선 개인 신기록이다.

이제 40홈런까지 단 1개를 남겨두고 있다. 달성하면 2018년 김재환(당시 두산), 박병호(당시 넥센), 한유섭(당시 SK) 이후 8년 만에 국내 타자 40홈런 고지를 밟는다.

8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결정한다.

팬 투표는 1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슈퍼 SOL'에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국내 선수의 경우 출신 중학교에 선수 명의로 200만원의 기부금도 전달된다.

/주홍철 기자



'어울림' 넘어 '완전한 하나'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애인생활체육대회' 준비 작업 박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장애인 생활체육 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다.

전남도·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장성 남면문화센터에서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애인생활체육대회'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한 세부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사진)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가 함께 준비하고 개최하는 첫 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양 지역 선수단이 하나의 대회에서 함께 뛰고 어울린다는 점에서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를 장애인체육 현장에서 보여주는 첫 화합의 무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대회는 전남과 광주 장애인생활체육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 대회 명칭도 '제1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장애인생활체육대회'로 변경

했고, 참여 범위도 확대해 전남·광주의 더 많은 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생활체육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장애인체육회는 공동 개최에 뜻을 모아 사업비를 분담하고, 참가 규모 확대에 따라 개최식을 야의 행사로 변경 하는 등 대회 운영 전반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각자 개최하던 방식에서 공동개최로 전환함으로써 대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대회 개최 계획, 경기일정, 개폐회식 운영, 선수단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구체화하고 게이트볼·배드민턴·보치아·탁구·축구·농복·바둑·다트 등 9개 종목의 대진추첨을 진행했다.

/박희중 기자

김시우·김주형, 2026 프레지던츠컵 출전

김시우와 김주형이 골프 대항전 2026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 팀에 뽑혔다.

대회 주최 측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자동 출전권을 획득한 6명의 선수를 발표하면서 "세계랭킹 13위 김시우는 1순위로 뽑혀 통산 네 번째 프레지던츠컵 출전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세계랭킹 30위 김주형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라이언 폭스(25위·뉴질랜드), 마쓰야마 히데키(26위·일본), 호주 교포 이민우(29위), 애덤 스콧(51위·호주)이 인터내셔널 팀에

합류했다.

프레지던츠컵은 2년마다 미국대표팀과 세계연합팀(미국과 유럽 선수 제외)이 벌이는 남자 골프 팀 대항전으로 올해엔 이달 29일부터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은 각각 1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6명은 PGA 투어 펠덱스컵 포인트(미국) 및 세계랭킹(인터내셔널), 6명은 단장 추천으로 결정된다. 세계랭킹 57위를 유지한 임정재는 단장 추천으로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